

2021 문화계 결산 <1> 미술

대형 예술행사 동시에...이전희 컬렉션 지역문화계 활력

팬데믹 첫 해였던 2020년, 지역 문화계는 '완전 멈춤' 상태였다. 대형 예술축제인 광주비엔날레가 연기됐고, 많은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됐다. 2021년 역시 코로나 19의 위세는 여전했지만 문화예술계는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행사를 진행했고, 온라인 등 새로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며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각 분야별로 올해 문화계 움직임을 결산한다.

올해 광주·전남에서는 1년 연기된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등 3개의 mega 예술행사가 동시에 열렸다.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은 '이전희 컬렉션'이 광주시립미술관과 전남도립미술관에 기증돼 관람객들을 만난 점은 '핫이슈'였다.

반면 광주를 상징하는 대표 문화 행사인 광주비엔날레를 둘러싼 잡음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과 함께 미래혁신위원회가 꾸려지고 2023년 다음 행사 일정도 확정된 상황에서 재단의 체질과 시스템을 개선하고 명실상부한 세계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월1일 개막한 제13회 광주비엔날레는 대륙 축소된 39일간의 여정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Minds Rising, Spirits Tuning) 주제전과 광주정신을 다양하게 구현한 GB커미션 등이 광주 시내 곳곳에서 함께 열려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치유와 위로 연대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작품들은 감동을 전했다.

테드네 아사스나타샤 진발라 공동 예술감독이 기획한 올해 전시는 사마니즘적 요소를 강화한 치유와 회복, 강렬한 페미니즘, 민주화 연대, 인류 지성, 환경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관통하는 작품들을 일목요연하게 선보였다. 올해 주제전에는 40여개국 69작가(팀)가 참여해 40점의 커미션 신작 등 모두 450여 작품을 선보였다. 또 국립광주박물관, 광주극장,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라나 등으로 전시 공간이 확장되어 '광주의 장소'를 발견하게 한

광주비엔날레, 치유·위로 연대 감동 인사잡음 비엔날레재단 혁신 목소리 디자인비엔날레·수목비엔날레 인기 전남도립미술관 개관 새 문화명소로

점도 의미있었으며 오월 향쟁의 현장인 옛 국군광주병원에서 열린 '볼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 사이'전은 '장소'가 주는 목직함 무게감이 전달되면서 많은 인기를 모았다.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열린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역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다-레볼루션'(d-Revolution)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세계 50여개국 421명의 작가 및 국내외 기업에서 총 1039종의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작들은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과 AI 등 첨단 과학을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들로 눈길을 끌었으며 환경과 생태, 기계와 인간의 문제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작들도 많았다.

같은 기간 열린 2021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채찬란 모노크롬-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전통적인 수목 작품은 물론이고, 창의적으로 해체되고 재해석된 작품을 통해 '수목'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흥미로운 전시공간은 비엔날레 3관으로 활용된 심상소학교(유달초등학교)다. 100년 넘는 시간을



올해 광주·전남에서는 광주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등 대형 행사가 동시에 열렸다. 코로나 19로 두 차례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열린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모습.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건너온 '장소'가 갖고 있는 매력이 한껏 돋보이는 나무 바닥의 전시장에서는 '신세대의 도원경'을 주제로 젊은 작가들의 재기넘치는 작품들이 전시됐다.

올해 최대 화제는 단연 이전희 컬렉션이었다. 전시회가 열린 광주시립미술관과 전남도립미술관에는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아름다운 유산-이전희 컬렉션 그림으로 만나는 유산' 전에서는 김환기·이중섭·오지호·이응노·임직순 등 5명 작가 작품 30점을 만날 수 있었다. 사람들의 눈길이 가장 많이 쏠린 작품은 광주시립미술관의 첫 소장품이기도 한 이중섭 화백의 작품이었다.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린 '고귀한 시간, 위대한 선물' 전에는 김환기·천경자·오지호·임직순 등 4명의 지역 작가와 유명국·

박대성·김은호·유강열 등 한국 근현대 미술을 장식한 거장 8명의 작품 19점이 나왔다.

지난 3월 광양에 문을 연 전남도립미술관은 새로운 문화명소로 자리잡았다. '전남의 풍경을 담다'라는 컨셉으로 설계작업이 진행된 미술관은 전면을 유리로 감싼 독특한 외관이 눈에 띈다. 1만 759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 미술관 안에서 내다보는 바깥 풍경은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개관특별기획전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전은 '의재와 남농·거장의 길', '현대와 전통, 가로지르다', '로랑 그라스:미래가 된 역사' 등 세 개의 전시로 구성돼 인기를 모았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올해 기획한 전시는 '메타·가든'전, '2021 민주인권평화전-나도 잘 지냅니다'전, 리암길리의 '워크 라이프 이펙트'전, 지역예술 아카데미 작업으로 진행된 '배동신·양수아 100년

의 유산전' '강용운, 나를 춤추다' 전 등이 눈길을 끌었다.

10월28일부터 3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트 광주 21'에는 최근 미술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찾았다. 올해 판매액은 25억 7000만원으로 모두 650점이 주인을 찾아갔으며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은 모두 2만8530명이었다. 국내외 유명갤러리들의 참여가 저조한 점이나 매년 행사 주체가 바뀌는 점은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그밖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안공간 '산수짜리', '동명이인', 'DDF' 등 작지만 알찬 문화공간들이 문을 열었으며 이강하미술관, 담양담빛미술관, 오월미술관 등에서도 다채로운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관광재단, 온라인 'E-Book' 서비스

가이드북 '그런 광주 또 없습니다'

광주관광재단은 재단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온라인에서 책처럼 넘기며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E-Book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재단 홈페이지 E-Book 카테고리에서 '그런 광주 또 없습니다' 가이드북 시리즈를 업로드해 이용객이 재단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재단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재단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내려 받아 가이드북을 읽을 수 있었던 기존 시스템에서 E-Book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용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접근성, 활용도를 높였다.

한편 지난 8월 발간된 '그런 광주 또 없습니다'



가이드북 시리즈는 예술관광, 생태관광, 미식관광, MICE관광 4개의 주제로 예술여행코스, 생태힐링스팟, 광주맛집, 권역별 MICE 관광 등 광주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자원을 소개한 책이다. 문의 062-611-3634. /전은재 기자 ej6621@

광주정신 만들어온 옛 사람들 이야기

정인서 서구문화원장 '푸른 역사 뒤에 광주가 있었다' 발간

광주혼을 빛낸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발간됐다. 책은 광주지역 역사문화자원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개별 인물들의 행적을 정리했으며 지역 미시사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인서 광주 서구문화원장은 광주정신을 만들어온 옛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정리한 '광주풍경 2: 푸른 역사 뒤에 광주가 있었다'를 발간했다.

책은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의 하나로 발간됐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문집과 '조선왕조실록' 등에 실려 있는 27명의 인물들이 남긴 편지, 일

기, 여행기, 시, 행장, 묘비문 등 공적 기록 문헌들을 기초로 쓰였다.

책에는 광주에서 살았거나 광주를 거쳐 간 인물들이 본 광주 모습과 광주에서 벌어진 사건들의 행적을 추적한 내용들이 실려 있다. 저자는 꼼꼼한 자료조사를 토대로 사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상력을 일부 가미했다. 인물들의 행장을 정리해 광주정신을 형성한 기쁨과 풍류, 인정이 넘치는 광주의 옛 모습을 그려볼 수 있도록 했다.

남편의 유배를 따라 광주에서 힘들게 살았던 문중의 딸 경혜공주, 광주천 범람을 잡기 위해 석서정이라는 정자를 지었다는 김상 목사 이야



기를 만날 수 있다. 또한 한밤중 화살 한 발 때문에 광주의 읍호가 강등되었던 사건, 무릎을 꿇고 8일동안 죽음으로 항거한 최형한 등의 이야기도 나온다.

저자는 "한국현대사의 어둠을 밝힌 광주의 빛나는 역사는 광주혼을 지닌 여러 인물들의 자랑스런 행장에서 비롯됐다"면서 "광주는 우리 역사로부터 받아야 할 합당한 영광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자는 지금까지 '양림동, 근대문화 유산의 표징', '무등산이 된 화가 허백련 오지호', '공공미술 광주에 웃을 입시다', '양동시장에서 서창 들뜬까지1,2' 등의 책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p>옥상지붕공사</p> <p>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p>	<p>옥상스틸방수</p> <p>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p> <p>[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p> <p>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p>
---	--

신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Since 1982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